



목포 세계적 규모 가톨릭 성지 내달 5일 조성 사업 협약 체결

목포에 세계적 규모의 대성당 등 가톨릭 성지가 조성된다. 목포시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은 27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정종득 시장과 장용복 신부를 비롯한 추진위원과 KHS그룹건축사사무소,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성지조성 사업 기본설계안' 확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조감도> 시는 확정한 설계를 토대로 다음 달 5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가톨릭 성지 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사업안에 따라 광주대교구청은 목포시 산정동 옛

가톨릭 병원 부지에 세계적 규모의 대성당과 부대시설을 건립하고 시는 공용 주차장, 사회복지관, 전망 데크를 설치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광주대교구청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성당과 1만 1천800㎡ 규모의 교육관, 다목적 강당 등을 짓는다. 가톨릭 성지가 건립될 목포 산정동 부지는 광주·전남지역 가톨릭 교회의 사발점이자, 선교 활동의 중심이 됐던 곳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임영기자 lyc@

목포만평

- 김종우



말도마라! 우리도 목숨걸고 산다

광주 근로자 월급 가장 많이 줄었다

작년보다 10만원 줄어 평균 206만원

전남지역은 230만원으로 1.8% 감소

올해 광주지역 근로자들의 월급봉투가 전국에서 가장 얕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16개 시·도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1만184곳의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06만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3천원(-4.7%)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 전남은 4만3천원(-1.8%)이 줄어 230만6천원이었다.

월급은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과 같은 특별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계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광주지역 근로자들은 정액급여는 196만8천원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초과급여가 9만9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0.8%나 감소했다. 반면 전남지역

초과급여는 23만6천원(-0.2%)으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정액급여(207만원)에서 3만2천원(-2%) 줄었다.

노동부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모든 시·도에서 초과급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월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30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32만8천원(1%) 감소했다.

지역별로 서울의 1인당 월급은 259만1천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울산(242만6천원), 대전(236만원), 경기(234만4천원), 전남(230만6천원), 경남(227만2천원), 경북(214만1천원),

인천(214만원), 충남(213만4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의 평균 월급은 서울의 70.8% 수준인 183만5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196만3천원), 대구(202만2천원), 부산(202만5천원), 충북(205만5천원), 강원(205만6천원), 광주(206만7천원) 등 7개 지역은 서울의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4월 현재 전국의 1개월 총 근로시간 평균은 전년 같은 달보다 0.2시간 늘어난 185.1시간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광주로 172.4시간이었으며, 제주(174.0), 부산(175.2), 서울(178.1), 전남(181.2) 등도 전국 평균보다 짧았다.

■ 시·도별 월급여액 및 수준
(원: 천원, %)

시·도	월급여액	수준(서울=100)
전국	2,304	88.9
서울	2,591	100
울산	2,426	93.6
대전	2,360	91.1
경기	2,344	90.4
전남	2,306	89.0
경북	2,272	87.7
인천	2,141	82.6
충남	2,140	82.6
광주	2,134	82.4
강원	2,067	79.8
충북	2,055	79.3
부산	2,025	78.1
대구	2,022	78.0
전북	1,963	75.7
제주	1,835	70.8

았다. 반면 긴 지역은 경북(195.3), 충남(193.6), 충북(192.2) 등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2011년까지 신·경 분리

최종안 확정…명칭 '농협연합회'로

정부가 2011년까지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 사업을 자주회사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바꾸기로 하고 27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6일 밝혔다.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간 민간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와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제작기로 놓았던 신경 분리안을 종합해 정부가 마련한 최종판이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회는 세 부문으로 독립법인화된다. 농협중앙회가 농협연합회로 바뀌고 교육·지도사업 등 조합과 조합원을 지원하는 기능만 맡게 된다. /연합뉴스



박시장 시정 설명

자치구 순방에 나선 박광태 광주시장이 27일 동구청에서 구정현안과 사업 계획을 보고 받은 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정 방침과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든다

임용시험 수업 실연 배점·우수교사엔 인센티브

교원 임용시험 때 수업 실연을 잘 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학교에도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 임용 단계

에서부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내년부터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해 수업 실연 배점을 확대하고 필기 중심의 1차 시험은 합격사정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기 때문이다.

교육대, 사법대 등 고교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내년부터 평가 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이 나오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도별로는 우수 교사 인증제를 실시해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모든 교사가 학기별로 2회 이상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 앞에서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확대·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대, 사법대 등 고교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내년부터 평가 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이 나오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내달부터 토·공휴일 제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8일 일본 고치현과의 산업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한다. 박 지사는 4박 5일 일정의 이번 일본 방문기간 동안 아마구치현에서 열리는 '제18회 한일 협력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에 참가해 환경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고치현과의 산업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일정의 이번 일본 방문기간 동안 아마구치현에서 열리는 '제18회 한일 협력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에 참가해 환경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고치현과의 산업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기자 redplane@kwangju.co.kr

금산공안중개사

T. 081-5668 H.011-801-5354

[금동동 사랑동 역 건너 2순환도로]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C1지역)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지

약 2850㎡, 기적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

청첩면성과 5.18 광로변

•광주 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판매(주) ☎ 062) 524-3059, 062) 529-1409

(광주시 북구 문일동 477-2 문암주유소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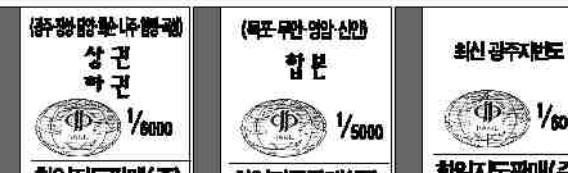
관리지역 세분화 신판지도출시!!

이번에 새로나온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이번에 새로나온 신판 지도책은

◎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



독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

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와 판매 중

입니다.

상담 ☎ 062) 524-3059

문의 ☎ 062) 529-1409

부동산 투자 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편선부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 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3.3㎡당 20만원

▶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집, 전철역 5분거리)
매매가 ㎡당 36만원(원투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고시텔(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건 560㎡
- (최근준공) 룸52(룸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 대지(복구 신안동) 402㎡(물류창고적합)
매매가 3.3㎡당 150만원

상가주택(오지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
- 대 496㎡/건 1487㎡(6층건물) 매매가 17억

▶ 임야(남평을 우산리) 16,811㎡(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천

농지(총효동-광주호상류) 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재, 매매가 ㎡당 9만5천

▶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 입구) 7,6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